□ 질병 시리즈 ④ □

주령별 발생질병의 진단과 치료 (I)

〈한국카아길 제공〉

○…… 가금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는 경제상의 큰 손실을 막는데 퍽 ……○
○…… 중요한 일이나 이에 능력과 의욕을 지닌 연구진과 충분한 설비 ……○
○…… 를 갖춘 실험실이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 기사는 가금을 ……○
○…… 기르는 사람들이 사양장에서 직접 병이 발생하는 연령에 의거 ……○
○…… 하여 진단할 수 있게 A·E Ferguson의 리포트를 토대로 ……○
○…… 엮은 것이다. ……〈편집자 주〉……○

1. 0 ~2 주령에 잘 발생하는 질병

a) 장관질병에 속하는 병.

여기에는 제대염(Omphalitis), 살모넬라균증(Salmonellosis Starveouts)이 속한다. 제대염은 잘 아물지 않은 배꼽을 통한 세균감염으로 부화기내 종란이 오염되었을 때나 소독을 하지 않은 발육기 속에서, 육추실의 바닥깔짚과 모래를 통해 감염된다. 3~6 일령에 가장 많은 치사율을 보이며 부화후 8일전에 치유되거나 폐사되거나 한다. 이 병에 걸린 병아리는 배꼽근처에 부스럼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병아리에서는 여기에 짙은 색소가 나타난다. 이 병은 한정된 몇 종류의 병아리만이 병의 전파력이 있으며 그 외는 병을 전파하지 않는다. 치료는 효과가 없으므로 육추실의 소독을 철저히 하며 육추실 온도가 낮으면 바닥이 습해져 제대염 발생율이 증가되므로 온도를 적당히 유지시키고 전파력이 있는 조류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모넬라균증은 난(卵)에 그 원인이 있을때 부화후 1일령부터 발병하며, 부화기에서 오염되었을 때는 4~6일만에, 육추실에서 오염되었을 때는 6일이 넘어야 발병한다. 이 병에 걸린 병아리는 열이 나고 회백색의 설사를 하며 항문근처는 분변이 붙어 더럽혀져 있다. 발병 후 6일이 지나면 날개쭉지와 다리의 관절은 부어오른다. 장관의 장애는 초생추에서는 보기 힘드나 성계의 장과 비장에서 황색이나 회색의 괴사조직이 발견된다. 살모넬라균증중 추백리는 난계대성전염병이므로 종계장에서 급속평판응집으로 양성계를 검정해야 한다.

b) 신경계통과 호흡기계통 질병에 속하는병.

여기에는 아스파질르스병(곰팡이 폐염),CRD(만성호흡기병), 닭뇌척수염(A·E), Vit E셀레늄결핍증, Vit D결핍증 등이 속한다.

첫째로 곰팡이성 폐염은 곰팡이(A·Fumigatus)가 계란껍질을 뚫고 들어가 병아리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육추실 바닥깔짚에 곰팡이가 슬어감염되거나 곰팡이가 난 사료원료를 써서 사료를 만들었을 때 감염되는 수가 많으므로 바닥을 볏짚으로 깔때는 반드시 곰팡이 난 부분을 훑어내고 햇빛에 말려야 하며 물통

주위의 젖은 깔짚은 발견 즉시 교체해야 한다. 이는 콕시듐증에도 근본 대책이 되고 있다. 또한 초생추에는 사료제조과정에서 사료에 당밀을 가하거나 Steam Heating 과정을 거치게 하여 환약모양으로 제조된 펠레트(Pellet)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좋다.

이 병은 3일령 정도의 병아리에서 다발하며 호흡기 증상이 주증이어서 몹시 헐떡이나 목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지는 않으며 가끔 신경증상도 나타낸다. 이 병으로 폐사한 병아리의 폐와 기낭에서는 녹황색의 치즈같은 덩어리가 보인다.

이 병은 항생제 치료가 되지 않으나 여름철 사료에 Sodium propionate를 200~ 300ppm 정도, gention violet를 섞어 급여하는 것이 예방 및 치료의 효과를 겸할수가 있다. 또한 부화후 1~5일까지는 광범위 항생제 (C.T.C, O.T.C, T.C등)을 비타민과 섞어 급여하고 또한 Furazolidon 10%제제를 사료 100kg에 100g의 비율로 급여하는것이 효과적이다.

둘째로 CRD는 난계대성 질병인 동시에 생독백신이나 디비킹(debeaking)을 한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고 허약해져 CRD를 발병하는 수가 있다. 또한 이병은 공기감염되므로 연속육추시 피할수 없는 병이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계사가 소독을 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 있으므로 이 병을 막기가 힘든 것이 문제점이다. 한번 사용된 계사는 반드시 물로 세척한 뒤 소독해야 하며 특히 브로일러는 소독기간을 일주일정도 잡아야 하며 육추실은 세척할 수있는 구조로 개조해야 한다.

이 때의 소독약으로는 크레졸(Carbolicacid)와 볼소제(Orthodichloro Bezol)를 섞어쓰며 이 외에도 가금졸, 단졸을 200배의 물로 희석하여 천정, 벽, 바닥에 흠씬 뿌려 3일정도 완전히 말린다. 또한 3일간에 걸쳐 마크로크로라이드, 타이로신, 스피라마이신 등을 용법에 따라 투약하는 것이 치료효과도 겸할 수있다. 증상은 호흡장애로 꾸르륵 소리와 휘파람 소리를 내며 비강, 기관, 기관지에 카탈성 삼출액 소견이 보인다.

닭뇌척수염(AE)에 걸린 병아리는 2, 3일 동안 운동실조에 걸리고 다리의 부분적 또는 완전마비가 생기며 병계는 정강이를 땅에 대고 걷거나 혹은 엉덩이를 땅에 대고 앉는다. 몸은 전반적으로 몹시 허약해지며 머리와 목 날개를 심하게 떨며 식욕이 없어져 결국 기아로 죽고 만다. Vit E, 셀레늄결핍증은 매우 건강해 보이는 3일령 정도부터의 병아리가 다리를 못쓰고 앉아 있다가 쫓으면 몇걸음 절뚝거리고 뛰다가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곤 하여 등의 우모가 분변으로 더럽혀져 있다. 또한 진전 현상도 보이며 몸의 균형상실과 삼출액 소견도 나타내는데 이는 흉부와 복부에 녹황색의 유동액이 보이는 것이다. 폐사한 닭에서는 흉부와 복부근육에 흰색줄무늬와 모래주머니에 회색병변이 생긴다. Vit E결핍증에는 Vit E를 충분히 공급해 주고 격리하여 앉은자리에서도 사료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닭은 폐사한다.

Vit D결핍증의 증상은 부화후 10일령정도에 나타나며 다리와 부리가 부드러워 지고 잘 구부러지며 연골과 만나는 지점의 늑골은 크게 확대한다. 치료는 물 속의 extra Vit D_3의 투여가 효과적이다 〈4월호에 계속〉